

<b>연구원화보</b>	방재시험연구원 20주년 화보	2
	방재시험연구원 20주년 주요 연혁	6
	방재시험연구원 20주년 치사	7
	방재시험연구원 20주년 기념사	8
<b>고사와 불</b>	꺼지지 않는 불	11
<b>연구 논문</b>	소형선박 무인기관실에 효과적인 자동소화장치 개발연구	12
	아크현상 해석 및 아크에 의한 전기화재위험성 평가	20
	내화보드피복 철골기둥의 내화성능 예측 연구	28
	ISO 13784 실대모형 화재시험에 의한 샌드위치패널 화재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Ⅱ (온도측면)	35
	<b>조사 연구</b>	IMO방화전문위원회의 선박화재 시험 및 소화설비의 최근 동향 연구
<b>시험장치소개</b>	만능재료시험기	52
<b>FILK게시판</b>	교육관 개관 안내 / 2006년도 방재기술 교육일정	56
	FILK 인증품목	58
	FILK 인증기준 현황	75

방재기술 제40호 반년간(비매출)

발행일 : 2006년 4월 24일 / 발행인 : 박 정 훈 / 편집인 : 홍세권

발행처 :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/ 주소 :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69-1 / ☎ 469-881

전 화 : (031)881-6010 Fax : (031) 882-3527 / 홈페이지 : <http://www.ktpa.or.kr> / 인쇄 : 새한문화사 / 713-5649

## 방재시험연구원 20주년 화보



### 방재시험연구원 개원

1983년 10월 신축 공사를 시작, 1986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 "방재시험소"로 출발한 연구원은 방재 관련 종합시험연구원으로 발전하며 올해로 성년을 맞이하는 개원 20주년에 이르게 되었다.



### 일본건재시험센터 기술협정

연구원은 1991년 일본건재시험센터와 기술협정을 체결하고, 격년제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에 노력하고 있다. 사진은 2002년 연구원에서 주최한 10차 정기협의회 모습.



### 세계 선급 시험기관 지정

연구원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영국 로이드 선급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급 (BV, DNV, ABS, GL, NK)지정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.

**KOLAS 공인 시험기관 인정**

연구원은 1995년 9월 기술표준원으로부터 ISO/IEC 17025에 따른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아 국제적인 수준의 시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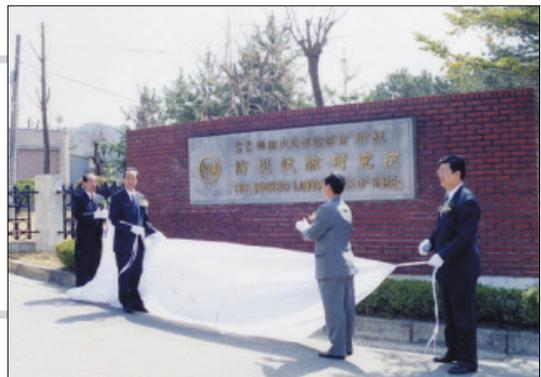


**ISO/TC 국내 간사기관 지정**

연구원은 1998년 6월 국제표준화기구(ISO) 화재안전분야 전문위원회(TC92)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, 이후 TC21/SC11(소방장비분야) 및 TC61/SC4(플라스틱 연소거동분야)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국제 표준의 제·개정 작업에 참여, 국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**방재시험연구원, 연구원 승격**

1986년 “방재시험소”로 출발한 연구원은 화재 전문 시험기관으로 축적해온 기술력을 향상시켜, 2000년 3월 방재 관련 연구업무까지 아우르는 종합방재시험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.





**TUV Rheinland Korea(주) MOU 체결**

연구원은 2004년 5월 유럽 최대 시험검사기관인 독일 TUV Rheinland의 국내 지사인 TUV Rheinland Korea(주)와 상호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고, 기술정보 교환 및 시험, 연구개발 등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.



**2004년도 보험문화대상 수상**

연구원은 2004년 5월, 그간 연구원이 수행해온 시험연구, 품질인증, 방재교육 등을 통해 보험산업의 과학화 및 국가 방재기술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보험협회가 수여하는 보험문화대상을 수상했다.



**방재기술 교육관 신축**

방재기술 교육관 신축 기공식이 협회 박정훈 이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9월 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. 신축 교육관은 430여 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최신 소화설비 등 교육실습실과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, 금년 5월 준공과 더불어 양질의 교육서비스로 고객만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이다.